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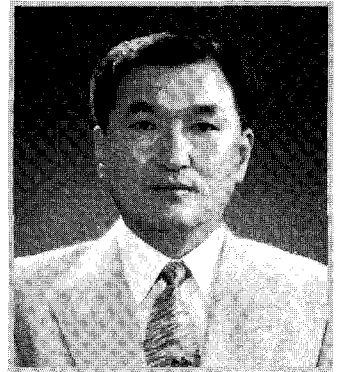
육계 자조금 사업

AI 경험 거울삼아 자조금 사업 적극 추진을

강 용 식 원농장 대표/분회 육계분과위원장

십년만의 혹서도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수가 없는 것 같다. 이젠 조석(朝夕)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싱그럽기만 한데 육계 자조금사업에 대해 언급하려니 지난 여름 더위보다도 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자조금제도가 도입된지도 십수년...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월 14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양계를 제외한 타축종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 거출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육계분야는 수입개방, 소비위축 등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업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간의 자존심이 걸린 명분(?)싸움에 서로의 시간만 낭비하는 소모전만을 벌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금년 봄에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AI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 산업에 있어 언론(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실감을 하였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자금)의 중요함을 더욱 절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곧 중단되었던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업계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닭고기 소비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하루 빨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업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계열사는 물론 우리

농가들도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가 해주길 바라고 내가 아닌 남이 하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참여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 육계인들의 성숙된 사고와 의식을 기대해 본다. **양계**

사료에서의 거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 광 초 경인축산 대표

1990년대 이후 계열화 사업이 발전하며 육계업은 단순 1차 산업에서 계육을 가공하는 2차산업으로 변천해왔으며 더 나아가 3차산업인 유통 및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제 육계산업은 육계 생산만으로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해졌고 가공공장 또한 육계를 구매하여 도계가공만 하는 2차업만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육협회가 탄생하게 되고, 육계 생산 및 사육분야에 대해 양계협회와 관점을 달리하면서 양협회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육계업의 발전과 사업의 영위는 최후 소비자가 계육을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육된 육계를 가공공장에서 얼마나 신선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2차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도계장에서 생산까지 주도하려 하는 것은 육계사육의 특성상 대량생산 및 종업원에 의한 대리생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질병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육계산업은 기업형태의 도